

해외건설 5대 강국 진입을 위한 과제

2010. 12. 9.

관계부처 합동

순서

I. 2010 해외건설, 성과와 평가	1
II. 2014 해외건설 5대강국을 위한 전략	3
III. 세부 추진 대책	4
1.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4
2. 정부의 지원역량 강화	10
3. 중점지원분야 발굴 및 육성	12
IV. 추진 일정	16

I. 2010년 해외건설, 성과와 평가

- (성과) 해외건설 수주액은 금년 11월말 현재 653억불로 금년말까지 사상 최대인 7백억불 달성 전망('03년 이후 연평균 60% 성장)

< 최근 해외건설 수주 추이 >

(단위: 억불)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11
연간실적	36	75	109	165	398	476	491	653

- 해외건설시장 점유율도 '03년 1.9%(11위, ENR기준), '09년 4.4%(9위)에서, '10년에는 5%를 차지해 7위로 올라설 전망(참고1)

* Engineering News-Record : 매년 세계 225개 건설업체 매출액을 발표

- (평가) 해외건설 수주액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수주구조, 수익률 등 질적 측면의 성장은 여전히 미흡

- (지역편중) 오일머니에 기반한 중동지역에 수주가 집중

☞ 유가변동 등 외부환경 변화에 취약, 안정적 수주흐름 곤란

* 중동지역비중: 45년 누계) 62%, 최근 10년) 63%, '09) 73%, '10) 76%

* 두바이유가와 해외수주액과의 상관관계수: 0.89 ('72~'10, 39년간 누계자료)

- (낮은 부가가치) 단순 도급형 수주가 지배적이며 핵심설계 기술이나 핵심 부품을 대부분 외국업체에 의존

* 수주액 중 사업별 비중('10): 단순도급형) 98.1%, 투자개발형) 1.9%

* 설계를 포함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세계시장 점유율(ENR '10): 0.5%

☞ 후발국가들이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쉽게 추월 가능하며 특히 중국은 '09년에 이미 해외시장 1위 차지

* 중국 해외시장 점유율(ENR): '03) 6%(7위) → '08) 11%(3위) → '09) 13%(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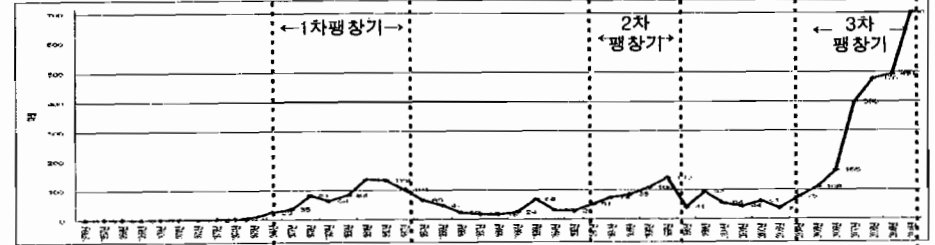
우리 해외건설의 양적성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도, 질적 성장을 유도하는 내실있는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

참고

국가별 점유율 및 해외건설 수주 추이

- 우리 해외건설 수주 추이

○ 1차 호황기(중동붐), 2차 호황기(아시아 플랜트), 현재 3차 호황기('04~)에 진입



- ENR 기준 국가별 시장 점유율

2003		2008		2009	
순위	국가(업체수) 점유율	순위	국가(업체수) 점유율	순위	국가(업체수) 점유율
1	미국(66) 19.1	1	미국(25) 13.1	1	중국(54) 13.2
2	프랑스(7) 14.9	2	프랑스(5) 11.9	2	미국(20) 13.0
3	독일(6) 10.3	3	중국(50) 11.0	3	프랑스(5) 11.1
4	일본(19) 8.9	4	독일(4) 10.0	4	독일(4) 9.2
5	스웨덴(1) 8.2	5	이태리(26) 8.0	5	이태리(22) 7.4
6	영국(6) 6.5	6	스페인(11) 7.3	6	스페인(11) 7.4
7	중국(47) 6.0	7	일본(15) 6.3	7	일본(13) 4.6
...
12	한국(6) 1.9	13	한국(13) 2.9	9	한국(12) 4.4

- ENR 225대 건설업체 중 한국 기업 list 및 매출액(억불)

2003		2008		2009	
순위	업체명 매출액	순위	업체명 매출액	순위	업체명 매출액
23	현대건설 15.9	52	현대건설 19.5	23	현대건설 37.0
46	대우건설 5.6	53	삼성ENG 18.6	35	삼성 ENG 26.2
60	삼성 ENG 4.0	67	대우건설 12.6	42	대림 건설 22.3
145	쌍용건설 5.4	68	GS건설 12.5	54	대우건설 17.5
147	한진중공업 5.1	75	삼성물산 9.6	63	GS 건설 14.9
194	대우 ENG 4.6	77	대림산업 9.4	72	삼성물산 12.0
		81	SK건설 8.9	87	포스코 9.1
		93	쌍용건설 7.2	94	SK 건설 7.9
		101	한진중공업 6.6	99	쌍용건설 7.3
		115	포스코 4.9	134	롯데건설 4.2
		196	금호산업 1.42	143	한화건설 3.4
		198	롯데건설 1.41	196	한진중공업 1.7
		203	한화건설 1.33		
합계	6개 40.6	합계	13개 113.96	합계	12개 163.5

II. 2014 해외건설 5대 강국을 위한 전략

비전	2014년 세계 5대 해외건설강국 진입	
목표	양적 성장	질적 성장
	1,000억불 수주 시장점유율 9% 달성 ('10, 5%) 50위 이내 한국기업 6개 ('10, 3개)	비중동 지역비중 40%('10, 23%) 투자개발형 비중 5%('10, 2%) 엔지니어링 시장점유 1%('10, 0.5%)



세부 추진 대책	우리기업의 경쟁력 강화			
	①금융조달력	②기술력	③인력 양성	④정보력
	정부의 지원역량 강화			
	①통합적 외교 지원		②위기관리 능력 제고	
	중점지원분야 발굴 및 육성			
	①물 산업	②도시개발	③교통인프라	④그린 에너지

III. 세부 추진 대책

1. 우리기업의 경쟁력 강화

① 금융조달 능력

- ◇ 우리업체는 자금조달능력 부족으로 단순도급사업에 치중
- ◇ 국내 민간 금융기관들은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경험이 부족
⇒ 민간의 투자여력이 확보될 때까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의 파이낸싱을 지원할 필요

- (GIF* 활용) 기 조성된 4천억원 중 금년내 2건의 사업에 총 1,400억원 투자
 - 글로벌인프라펀드: '12년까지 2조원 조성, 해외인프라건설사업에 투자
 - '11년에는 잔여 투자금액 2,600억원 전액을 투자
- (수은과 공동투자) 국토부·수은간 기 체결된 업무협약('10.11)에 따라, '11년부터 GIF, 수은 공동으로 투자사업 발굴 및 투자참여
 - 이를 통해, 국내 사업주의 ADB 등 MDB와의 협상력 제고
 - 향후 업무협약을 무역보험공사까지 확대하여 지분투자(GIF)·대출·보증(수은)·보험(무보) 3개 분야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 (시장개척자금 공동운영) 기관별로 개별 운영 중인 해외시장 개척자금을 '11년부터는 심사정보를 공유하여 중복 요소 제거

② 기술력 업그레이드

- ◇ 수익률이 높은 설계·CM 분야에 대한 우리업체 진출이 미흡
 - 해외건설 수주액 가운데 건설엔지니어링의 비중은 2%(’09)
 - * ENR 업체 분야별 수익률: 시공분야 7.8%, 엔지니어링 분야 9.1%
- ◇ 해외 플랜트공사의 핵심부품에 대한 우리 업체 기술경쟁력도 열위
 - ’09년 국산기자재 조달율은 40% 내외(일본 50%, 중국 51%)이며 특히 석유가스 플랜트 분야는 국산화율이 25% 수준

- **(핵심기술 확보)** 미래유망 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R&D 사업에 집중 투자
 - 이미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상업화 초기단계에 진입한 R&D 투자는 차질없이 마무리
 - 이미 추진중인 R&D 사업을 고도화하거나 신규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신규 R&D 사업을 지속 추진
- **(용역체계 선진화)** 현재 설계, 감리, CM 등으로 단절된 건설 기술용역 체계의 통합을 추진하여 업체 대형화를 유도
 - 건설기술용역 통합기준을 마련하여 업계 불편을 최소화
 - 기술인력관리, 업체선정기준(PQ) 등도 통합 체계로 정비

③ 인력 양성

- ◇ 해외건설 전문인력의 공급이 업체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
 - * 현장에 즉시 투입가능한 전문인력은 연 2천명 추가로 필요(해건협)하나 업계에서 재교육 등을 통해 배출가능한 인력은 연 3백명 수준
- ◇ 구직자들은 해외와 국내 현장간 임금격차의 축소, 열악한 해외근무 여건 등으로 해외건설 현장 근무를 기피

- **(교육과정개편)** 고용부로 통합(10.7)된 「인력사업」 틀내에서 운영 하되, 개별 부처의 수요에 맞게 교육내용 및 규모를 개편
 - **(교육내용)** 현행 해외건설 일반에 대한 범용교육 위주에서 세분화된 전문가 과정(기본설계·CM·조달 등)으로 개편
 - **(교육인원)** 현행 1,400백명 수준에서 ’12년부터는 3,000명으로 확대하고 예산증액도 추진
- **(병역혜택)** 건설업종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해외건설현장으로 배정을 유도
 - ’11년부터 해건협을 산업기능요원 접수기관으로 지정하여 산업기능요원 배정의 전문성·객관성 확보
- **(취업 지원)** 양성된 전문인력이 실제 취업으로 연계되도록 지원
 - **(인력채용 쿼터제)** 국토부와 업체간 협약을 통해, 신규채용인력의 일정비율을 해외건설 특성화 대학(원) 졸업인력 채용을 유도
 - **(취업박람회)** 금년에 1회 개최한 취업박람회를 매년 개최하여, 구직자에게 해외건설 채용정보를 제공
 - * 해외건설플랜트의 날 부대행사(12.7)로 개최, 20개업체 참여, 1천여명 참석

④ 정보능력 강화

- ◇ 기업들의 수주활동에 필요한 정보가 분산적으로 생산, 관리
 - * 해외건설협회(5개국), KOTRA(4개국), 수은(12개국) 해외지사 별도 운영
- ◇ 정보의 내용도 일반 시장개황 수준에 그쳐, 업체들이 수주 활동에 즉시 활용하는데 한계

- (정보공유) 기관별 생산정보를 온·오프라인에서 통합운용
 - (온라인) 해건협, KOTRA, 수은 등 개별기관 회원사(유료가입) 들은 타 기관의 회원으로 자동등록되게 하여 정보 접근성 확대
 - (오프라인) 정기적으로 업체대상 공동 시장설명회를 개최
 - * 3개 기관이 매 분기마다, 대륙별로 구분하여 1회씩 개최
- (정보품질 제고) 해건협, KOTRA, 수은의 해외지사를 연계하여 국가별로 특화된 전문정보를 생산
 - 국가별로 우리업체의 진출관심 분야에 집중해서 정보 수집하되,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정기간 이상 분석 및 DB화
- (업계간담회 정례화) 해외건설 관련된 해외주재관(국토해양관, 에너지관)을 초청하여 정기적으로 국내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
 - * 금년 해외건설·플랜트의 날(12.7)에 해외주재관(24명)을 초청, 업계간담회 개최
- (정보수요조사) 매년 해외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진출희망국가 및 분야, 필요정보 등에 대해 설문조사 추진
 - * 일본 JBIC는 '88년부터 매년 '일본 해외기업경영조사'를 실시

2 정부의 수주지원역량 강화

① 외교력 통합

- ◇ 현재는 개별부처별로 해외건설 수주지원활동을 전개
 - 특히 플랜트분야는 국토부, 지경부 간에 통합적인 지원체계 부재
- ◇ 최근에는 공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나, 공기업간에 유기적 협력체계도 부재
 - ⇒ 정부 통합적으로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공기업의 해외진출도 시너지 효과를 유도할 필요

- (협의체 운영) 플랜트분야 해외진출 지원은 국토부·지경부장관이 공동위원장인 플랜트지원협의회*를 통해 정책 조정
 - * 비상경제대책회의('09.7)에서 설치 의결, 금년 12월 대통령 훈령으로 근거 규정 마련('10.12.7 법제처 심의완료)
- (시장개척단·발주처 초청 공동추진) 부처별로 개별 추진중인 행사를 부처공동으로 추진하여 수주활동 지원에 효율성 제고
 - 내년초 제1차 플랜트지원협의회를 개최, 관계부처 합동으로 '11년 시장개척단 및 해외 발주처 초청계획을 수립
- (공기업 해외진출 조정)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의 해외사업은 해외건설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부 1차관)에서 분기별로 해외진출 계획을 심의
 -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합동으로 투자개발형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pairing system도 구축

② 위기관리능력 강화

- ◇ 최근 저환율 추세로 특히 중소기업체들이 환위험에 크게 노출
- ◇ 일부 중소건설업체는 해외건설공사 실적을 허위로 신고하여 국내 건설공사 입찰 자료로 제출
- ⇒ 우리 업체의 리스크는 최소화하되, 허위신고 등은 엄격관리

- **(해외 PF 심사강화)** 해외의 무분별한 투자개발형 사업참여를 통제하기 위해 금융권의 대출심사 기준을 기 강화('10.3)
 - 향후에도 특정국가 및 분야의 사업리스크가 높아질 경우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대출심사 기준을 추가로 강화
- **(환위험 헷징)** 해외공사가 장기화·대규모화 되는 추세를 감안, 대형프로젝트에 대한 환변동 보험의 결제기간을 연장 추진
- **(해외건설실적 검증강화)** 증빙서류 확인기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허위보고에 대한 벌칙규정도 강화

3 중점지원분야 발굴 및 육성

- ◇ 우리 기업의 수주경쟁력 강화와 우리 정부의 수주지원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하여,
- ◇ 한국이 비교우위를 선점하고 있거나 할 수 있는 4대 분야(물관리, 도시개발, 교통 인프라, 그린 에너지)를 전략적으로 육성

① 물관리 산업

- **(시장 전망)** 물관련 건설시장* 규모는 '10년 기준 약 15백억불 규모로, '14년까지 연 평균 6% 성장 전망(WMI 2010)
 - * 수로, 상하수도, 댐, 저수지, 수처리 플랜트 등을 포함
 - 인구증가, 기후변화 등으로 국가별로 특화된 물관리 수요 발생
- **(우리업체 강점)** 댐, 수로 및 상하수도 건설 등 토목분야는 선진국 수준이며, 특히 담수화플랜트는 세계 1위의 기술력을 보유
 - * 우리 기업은 누계기준 총 473건 340억불 규모의 물관련 해외공사를 수주 (상하수도 59%, 담수플랜트 30%, 댐 9% 등)
 -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물문제와 지역개발을 동시에 해결하여 수자원이 부족한 개도국에 물관리 통합솔루션으로 제시 가능

② 도시 개발

- **(시장전망)** 개도국의 인구증가와 도시화 과정으로 향후 20년간 매년 250개의 신도시가 개발될 전망(UN, 세계도시전망, '10년)
 - * 2050년까지 글로벌 도시인구는 29억명이 증가(35→64억명)하고 도시화율도 현재 50% 수준에서 70% 수준으로 증가 전망
 - 현재 해외도시개발 사업은 100여건 88백억불 규모 (LH, '10)

- **(우리업체 강점)** 한국의 신도시개발은 짧은 조성기간, IT기술, 공간정보시스템(GIS) 활용 등으로 개도국에 적합한 모델로 평가
 - * 30만명 규모 도시 건설에 타국가는 통상 20~30년, 한국은 5~8년 소요
 - ** 베트남, 자메이카 등에 GIS 구축, 측량, 지적제도 개선사업 수행(19건)
- 우리기업은 현재 3개국에서 123억불 규모의 도시개발 사업 진행중
 - * 알제리(부이안 40억불, 부그줄 6억불, 시디압델라 6억불), 베트남(하노이 9억불, 북인카잉 28억불, 호치민 10억불), 카자흐스탄(아스타나 10억불, 알마티 14억불)

③ 교통 인프라

- **(시장전망)** 세계 인프라시장은 '10년 기준 1조불 수준이며 도시화, 경기부양책 등으로 '14년까지 연평균 8% 성장전망('10, WMI)
 - 전체 인프라시장에서 철도·도로 등 교통 인프라가 약 40% 차지
- **(우리업체 강점)** 우리업체는 고난이도 교통인프라 건설에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속철도는 세계 4번째로 건설
 - * 최근 10년간 도로는 219건(100억불), 도시철도는 16건(18억불), 장대교량은 17건(7억불), 터널은 10건(1억불) 수주
- 우리 업체들은 시공분야 외에도 항만·공항·철도 등의 교통 인프라 운영과 관련된 컨설팅, 기술이전 등에도 적극 진출중
 - * 도로공사: 15건, 인천공항공사: 3건, 철도시설공단: 3건 등

④ 그린 에너지

- **(시장 전망)** 글로벌 그린 에너지 시장은 '09년 1,620억불(최근 5년간 연평균 28.2% 성장)규모이며 '15년 4천억불, '20년 1조불로 성장 예상(UNEP)

- 유가상승과 온실가스 감축노력으로 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 탄소 포집 등 건설 플랜트 수요 급증
 - * EU, 중국,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은 '20년까지 에너지 생산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토록 의무화
- LNG는 '15년까지 연평균 9% 성장
- **(우리업체 현황)**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조력, 파력 등)는 대기업·발전사를 중심으로 해외수주 증가 추세
 - LNG 분야에서는 플랜트 시공에 강점이 있으나 액화공정 등 원천기술은 아직 열위인 상황